

2013년 신입생, 1학년을 마치고



13학년 황지예

철학과에 입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종강파티로 마무리 할 때까지 2013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처음 철학과를 들어 왔을 때에는 동기 선배 모두와 어색해서 재미도 없어서 수업만 듣고 집으로 가곤 했다. 하지만 철학과 모두 엠티를 갔다 오고 여러 행사에 참여 하면서 동기들과 친해지면서 과 생활에 잘 적응해 나 갈수 있었다.

많은 행사 중에서도 체육대회랑 일일호프, 미네르바 향연이라는 철학과 축제 등 기억에 많이 남는다. 철학과는 여학생 수가 적어서 체육대회 연습을 하는데 인원도 부족해서 고생을 한 기억이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한 것 같았다. 결과는 비록 우승하진 못했지만 여자선배와 여자 동기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여자 종목이 끝나면 남자 종목을 구경하면서 응원도 했다.

그리고 인대컵에서는 날씨가 흐린 가운데도 철학과가 중어중문, 국어국문, 영문과를 차례대로 꺾고 우승을 했다. 그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일일호프는 티켓도 팔아보고 호프집에서 주문도 받아보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

신입생들의 첫 대학생활 후기 ■

람이 힘을 모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2학기 10월 말쯤에는 미네르바 향연이라는 철학과가 주최하는 축제를 준비 했다. 인대에 있는 모든 학과가 축제를 한다. 철학과에서는 가요제, 댄스제, 연극, 토론, 영화제 등을 준비했다. 각자 서로의 역할을 맡아 밤 늦게 까지 연습을 했다. 연습을 하면서 웃고, 울면서 축제를 준비해 나갔던 날들이 새록새록 생각난다.

2013년을 재밌고 알차게 보내서 기분이 좋다. 이번 2014년에도 2013년 보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뜻 깊게 보내고 싶다.